

# 베트남전 메시지의 술한 방정식

〈메탈 자켓〉 〈지옥의 묵시록〉 〈하얀 전쟁〉 등에서 전쟁의 폐해와 광기 고발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었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는 베트남전쟁은 아직도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만큼 교전 당사국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논리를 찾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전쟁이다.

‘베트남전의 논리찾기’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도 꾸준히 시도돼 왔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가인 미국의 영화인들 스스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베트남전 영화 중 가장 뛰어난 것은 타쿠멘타리물”이라고 자기편하를 할 만큼 베트남전은 수많은 방정식을 가지고 전쟁 당사국의 영화인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

## 실험적인 전쟁영화의 걸작

최근 국내에 개봉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메탈 자켓〉(Full Metal Jacket)은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작가 구스타브 하스포드의 소설 《짧은 목숨들》(The Shot

Times)을 원작으로 큐브릭이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2001년 우주 오딧세이〉를 만들었던 큐브릭은 아이러니컬하게 21세기를 앞둔 시기에 20년전의 비극을 그린 〈메탈자켓〉을 만들었다. 그것도 미국에서 출간된 베트남전을 다룬 픽션들 중 가장 우수하다고 공인을 받은 작품으로 자신의 영화적 카리스마를 시험대에 올렸다.

그리고 그의 실험은 일단 호평을 듣고 있다. 우선 자신이 다른 영화에서 보여준 영화적 메시지를 이 한편의 영화에 집대성하는데 성공한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평가받을 만하다. 원작자인 구스타브 하스포드는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인 조커(매튜 모던)처럼 전쟁 당시 해병대 소속 중군 특파원으로 참전한 경험을 이 소설에 담았다.

이 작품에는 전쟁영화가 갖는 잡다한 스토리라인과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 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 살인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벌어지는 가혹한 훈련을 묘사한 뒤 곧바

로 카메라는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끈적거리 는 베트남 거리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구정공세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끝을 맺는다. 전쟁영화와 전쟁소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스펙터클’의 유혹을 과감히 벗어버린 이 영화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실험적인 전쟁영화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은 이른바 반전영화의 선두그룹에 속하는 영화이다. 유능한 그린베레였으나 월남전의 참상을 체험한 뒤 원주민들과 함께 작은 왕국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거츠 대령(말론 브란도)을 제거하라는 특명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윌러드 대위(마틴 쉰)가 전쟁의 이면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전쟁의 속죄양인 거츠대령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악(惡)’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거츠의 숙소에는 “고대의 주술이 종교가 되고 그 종교가 과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가 놓여 있다.

이 영화는 폴란드계 영국 소설가인 조셉 콘라드의 소설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의 주제를 그대로 옮겨와 영화로 만들었다. 시공간만 20세기 베트남이 아닌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일 뿐 영화는 이 소설

‘베트남전의 논리찾기’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꾸준히 시도돼 왔다. 베트남전은 수많은 방정식으로 전쟁 당사국의 영화인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 〈메탈 자켓〉 〈지옥의 묵시록〉 〈하늘과 땅〉 등의 반전영화와 함께 국내에선 〈하얀 전쟁〉이 베트남전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의 주제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작품의 기저가 서구 제국주의의 뒷모습이라는 점 역시 동일하다. 조셉 콘라드의 이 소설은 국내에서도 《어둠의 속》(나영균 옮김, 자유교양사)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 전쟁의 아픔으로 영화적 사유

할리우드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든 두편의 월남전 영화 〈하늘과 땅〉 〈7월 4일생〉도 전쟁으로 굴절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전쟁의 폐해와 광기를 그려낸 반전영화이다.

〈하늘과 땅〉은 베트남 출신 소설가인 레이 리 헤이스립의 두편의 자전소설 《하늘과 땅이 바뀔 때》 《전쟁의 어린이, 평화의 여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르포에 가까운 사실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결코 전쟁에 무릎 꿇지 않은 한 베트남 여인의 인생사를 그린 이 두편의 소설은 출간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보트 피플 출신인 헤프 티리의 실감나는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 여자의 한 많은 삶’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의 피맺힌 경험과 사유만으로도 소설은 성공할 수 있지만 영화는 ‘영화적 사유’를 통해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금칙을 떠올리게 한다.

골든 글로브 4개부문 상을 수상한 〈7월 4일생〉 역시 론 코빅의 동명 자전소설 《7월 4일생》(Born on The Forth July)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이 소설은 멋진 군복과 맹목적인 애국심으로 고등학생들을 전쟁터

〈메탈자켓〉 중 한 장면.

# 거래유형 따라 책의 특성도 달라

## 번역물 찾아내기 ③

조승훈

을지서적 외서부 사장

에 내몬 미합중국과 기성세대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다. 전쟁을 돌아보는 영화들의 가치가 '해당국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는지를 고발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옳다면 이 영화는 전쟁영화의 수작으로 꼽히기에 부족하지 않다.

정지영 감독의 한국영화 <하얀 전쟁>은 미국영화인 <아굽의 사다리>, <디어 헌터>, <귀향>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이 가져다준 후유증을 다룬 영화이다. 중견소설가인 안정효씨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살려 집필한 동명의 원작소설은 1983년 <전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실천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했던 것을 1989년 완성후에 <하얀 전쟁>(전3권, 고려원)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했다. 이 소설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 소호 출판사에서 <화이트 배지>(White Badge)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미국 언론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남부군>등 의식있는 영화 연출에 관심을 기울여온 정지영감독의 영화 <하얀 전쟁>은 원작의 이야기 구조를 지키면서 두 남자 주인공인 한기주와 변진수의 미묘한 심적 갈등을 연출해내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신국판으로 1천쪽이 넘는 방대한 소설을 114분 짜리 영화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리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 영화는 베트남전의 이면을 다룬 영화를 거론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화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측 전사자 22만 5천명(한국군 포함), 북베트남측 전사자 97만 6천명(베트남 포함)에다 탄약 소모량과 투하 폭탄량에 있어 2차세계대전을 훨씬 능가했던 이 살상전쟁이 잉태한 비극과 굴절된 역사는 '고엽제 후유증' '흔혈아 문제' 등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국내에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소설이 상당수에 이르는 데 비해 베트남전에 대한 방화가 몇몇 안되는 현상은 현지로가 필수인 주제의 특성상 엄청난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가 가져다 주는 부가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국내 여론에 힘입은 뛰어난 베트남전 영화를 기대해 본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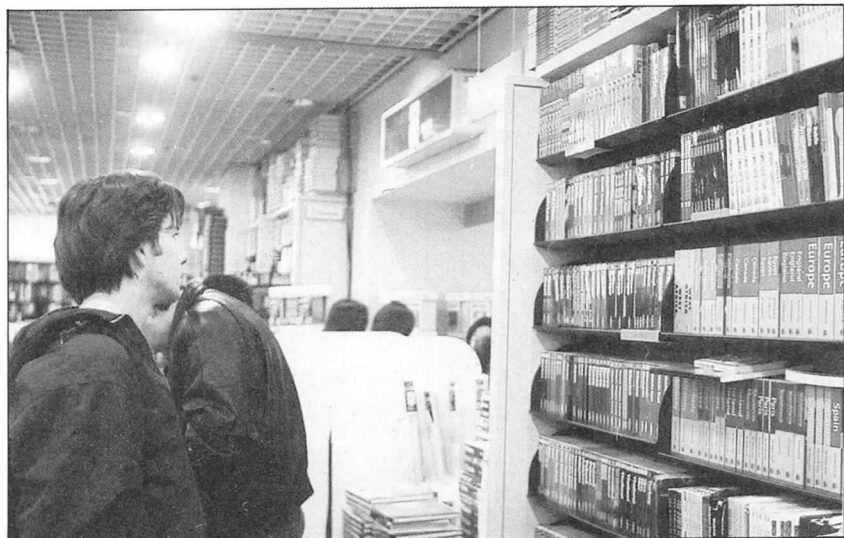
미국의 종합도서목록에 수록된 책들은 4만6천여개의 출판사에서 펴낸 책으로 이 책을 거래상의 유형별로 분류를 한다면 대충 세갈래로 나눌 수 있다.

① Net priced Titles : 순수학술단체·비영리단체의 출판물로 이 책들은 가입된 회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이다. 따라서 회원·학생들에게는 원가 이하로, 일반독자에게 판매하는 도·소매상에게는 이윤(margin)을 허용하지 않는 원가 즉 'Net'로, 그리고 도서관에게는 이용객의 수에 정비례해서 대형도서관에게는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책이다. 가격란에는 'Net' 또는 'write for info.'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런 책만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번역서로는 적합하지 않다. 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② Short Discount Titles : 학술·전문서적 및 교과서류로 가격면에는 'S'자가 표시되어 있다.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판사 또는 대학교 출판부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서점에서 판매할 성격의 책이 아니라 학교·도서관·기관에서나 구입할 성격의 서적이어서 소매상에게는 이윤의 폭을 적게 주기 때문에 'Short Discount'라고 부른다. 이런 책의 특징은 책이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소매를 할 경우 BIP에 나타난 가격보다는 좀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Short Discount Title'이라고 해서 번역물로서의 영리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책을 펴내는 출판사는 자기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특정 저자의 판권을 독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번역서를 찾는다면 절대 참작해야 할 출판사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다루는 MIT Press, 자크 데리다를 출판하는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그리고 지역 연구(area study)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Westview press 등이 다.

③ Trade Titles :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서적은 'trade title'이다. 미국에서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통상의 특



번역출판에 앞서 외국의 명문출판사들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성 때문에 대충 50내지 500여 출판사와 직거래를 해야 한다. 도매상과 거래는 특수 목적에 제한되어 있다. 직거래해야 하는 출판사 중에는 절대적으로 거래가 필요한 'major publisher'들이 있다. 명문 대형 종합출판사들인데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보면 언제나 이들 출판사의 책이 몇개씩 들어 있다.

번역서를 찾기 위해서 이들 명문출판사의 책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④ 도매상을 통해서 유통되는 서적들 :

미국은 워낙 큰 나라여서 전국 규모의 유통 자체만도 대단한 모험이다. 명문 출판사들이 산하에 여러 출판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판은 편집의 독립을 유지하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출판사 단위별로, 그리고 유통은 전체를 종합해서 집행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도매상은 이런 특수사정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매상과의 거래는 출판사와의 직거래에 비해서 가격과 거래조건이 불리하다.

따라서 도매상은 직거래보다 분명한 거래상의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 이점을 꼽는다면 배달이 빠르다는 것—특히 베스트셀러의 경우 이 점이 중요하다. 또 다른 장점은 어느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소규모 출판사의 서적 전문도매상, 외국서적, New Age, 또는 각종 취미나 운동관계서적 전문도매상 등이

다. 근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공급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정분야 전문도매상의 활용이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출판된 영문서적 또는 예술서적의 미국 마케팅에 이런 도매상의 활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번역서 선정에 참작해야 할 도매상을 전문 분야별로 살펴본다.

▲대형종합도매상 : Ingram Book Co. - trade title 전반. 서점에 공급한 양을 정리한 자체의 주간 베스트셀러 리스트와 베스트셀러의 재고보유량이 책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 Baker & Taylor-trade title은 Ingram보다 적은 대신 Short discount title을 많이 다루고 있다. 역시 특정서적의 재고보유량은 수요의 강도를 보여준다.

▲소규모 출판사 전문도매상 : Bookpeople/Inland

▲New Age 전문도매상 : De Vorss/Samuel Weiser

▲외국서적 전문도매상 : International Specialized Book Service

▲여러 소규모 출판사를 모아 공동 Distribute하는 회사 : Consortium Book Sales/National Book Network/Publishers Group West ❖